

소나무 枯死 급속 확산

가뭄·이상고온에 전남 두달새 43% 급증

전남도 전역에서 가뭄과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소나무가 대규모로 말라 죽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뭄과 고온현상에 나무들이 쇠약해지면서 솔 겹질 깎지벌레 등 병해충도 확산하면서 산림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곳곳에서 소나무 고사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전연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312,033ha에서 소나무 2만 8천 578그루가 말라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조사에서는 150여 ha에 걸쳐 모두 2만 그루가 말라죽은 것으로 나타나 2개월 만에 면적은 2배가, 고사한 소나무는 43%가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5천424그루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성군 4천 945그루 ▲영광군 4천633그루 ▲목포시 3천993그루 등이었다. 담양·나주·화순군 등 내륙과 전남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표 참조**

전국적으로는 산림청이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조사한 결과 71개

■전남 고사 소나무

시군	면적(ha)	그루
계	312,033	28,578
목포	20,000	3,993
여수	3,900	1,150
순천	5,000	670
나주	19,000	334
광양	30,000	410
담양	0,300	79
곡성	3,000	920
구례	10,000	442
고흥	3,100	105
보성	14,000	288
화순	15,160	420
장흥	3,770	399
강진	3,400	424
해남	9,000	1,710
영암	2,400	160
무안	25,000	1,788
영광	88,000	4,063
영암	23,000	4,945
진도	7,000	854
신안	27,000	5,424

(자료:전남도, 5월말 현재)

무 고사현상이 전남도 전체 임야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소나무와 잣나무 등 상록수는 겨울

시·군·구의 임야 1천478ha에서 약 100만 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소나무 집단 고사현상과 고온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 태풍이 없었고, 그 해 9월부터 올해 3월

까지 강수량은 적고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소나무와 잣나무 등 상록수는 겨울

철에도 잎의 기공을 통해 물을 기체 상태로 내뿜는 증산(蒸散)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커 고사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도 최근 소나무 고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고,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쇠약해진 소나무들로 인해 올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솔 겹질 깎지벌레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전남에서만 영광과 진도, 함평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5천여ha에서 솔 겹질 깎지벌레 등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내륙지방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 집단 고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소나무들이 쇠약해진 만큼 각종 소나무 병해충이 확산할 것에 대비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이 감동 2015년까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유치 성공 시민축제’가 3일 밤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 1만여 명이 축하공연을 지켜보며 U대회 유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채진 총장 사직서 다시 제출

“상상할 수 없는 변고 국민께 사죄”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날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영한 법무부 장관이 “사태 수

습과 사건 수사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돌려보낸 바 있다.

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분간 문성우 대검차장이 총장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총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 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정대,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

뢰를 한 단계 높여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무탈하게 끝난 이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며, 수사에 대해 제기된 각종 각종 제언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전남 천신일 세종 나모여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참고인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건을 이룬 시일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협뉴스

국내 最古 태극문양 나주 복암리서 출토

나주 복암리 고분군(사적 404호)에서 국내 최고(最古)의 태극문양이 그려진 목간(木簡·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문자 기록을 위해 사용한 나무판) 한 쌍이 발견됐다. <관련기사 2면>

또 백제의 지방 행정, 촌락의 농업 생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적은 목간도 함께 발견돼 문헌사료가 부족한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나주문물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지난해 복암



나주 복암리 출토 태극문 목제품. 맨 오른쪽은 적외선 사진. /오광록기자 kroh@

리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28점의 백제목간의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관련 유물들을 3일 서울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공개했다. /오광록기자 kroh@

청와대, 사퇴 만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정점에 있으므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공인에게는 사(私)가 없는 것이다. 옛말로 이야기하면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밝혔다.

학원 심야학습 시·도 조례로 자율 결정

특목고 개선안도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과 관련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

이다. 또 온라인 학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수강료를 규제하는 한편 오프라인 학원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연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통해 학원 단속방안과 함께 과학교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 신설,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교, 외고 등의 입시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과학교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되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또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시험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고의 경우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주는 가중치를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어듣기평가는 시도별 공동 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제 과정에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협뉴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부대비용이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6000

7 광주야생초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새로운 여행으로 더욱 저리하게 다녀오세요!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상품 1. 제주도 여행 패키지 219,000원
기간: 2009.08.14 - 09.14 (항공 포함) 상품 가격

KBS 1박2일 "올레길" 탐방
효령리, 배회리, 부리리, 선내와 나무꾼, 일출랜드, 송이재, 일출전망 컨디션

● 상품 2. 제주도 여행 패키지 219,000원
기간: 2009.08.14 - 09.14 (항공 포함) 상품 가격

● 상품 3. 제주도 여행 패키지 219,000원
기간: 2009.08.14 - 09.14 (항공 포함) 상품 가격